

보도일시 (인터넷) 2023. 9. 25.(월) 11:00,
(지면) 2023. 9. 26.(화) 조간

배포 2023. 9. 25.(월) 06:00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해양기자재 3종, 실제 민간선박에서 실증 시작

- 첨단 해양기자재의 국산화 박차...국내외 인증절차 거쳐 2025년 국제 상용화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기자재 수출 시장 확대와 국내 기업들의 기술 자립도 향상을 위해 산학연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첨단 해양기자재 3종에 대한 해상 실증을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번에 개발된 기자재는 ▲ 여러 개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바닷속 어군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광대역(CHIRP) 방식 고성능 어군탐지기', ▲ 해상의 선박, 장애물 등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어선·레저선박용 디지털 레이더', ▲ 해양데이터 국제표준(IHO S-100) 기반의 항해·환경 정보를 표출하고, 최신 충돌방지 제어기술까지 적용된 '통합 내비게이션' 등 3종이다. 이 기자재들은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R&D)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삼영이앤씨, 산엔지니어링, 한국과학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해양수산부와 산학연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이 기자재들을 실제 선박에 탑재하고 실증연구를 통한 제품 성능 점검 및 개량을 진행하며, 국내외 인증 절차를 거쳐 2025년에 국제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제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세계 수출 시장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해양수산 산업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디지털·친환경 신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해양수산 기자재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아 핵심 기술의 국산화, 상용화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규선 (044-200-6220)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장현 (044-200-6221)

참고

해상실증 테스트베드 및 국산화 장비 설명

해상실증 테스트베드	내 용
	◦ 해양수산물자재 실증용 GT 9.77급 다목적 어선 - 총 톤수 : 9.77톤 - 전장(L.O.A) : 25.75m - 너비(Breadth) : 3.80m - 최대승선인원 : 22명 - 속도(100% MCR 기준) : 약 24knot
탑재된 국산화 장비	설 명
	◦ 광대역 어군탐지기 - 선저에 송수신센서 설치 - 입력전원 : 12~24V DC - 송신주파수 : 40~210KHz - 송신출력 : 300W~1KW - 통신방식 : 10/100 Mbps LAN
	◦ 4kw 디지털 레이더(Dome Type) - 마스트에 설치 - 송신 출력 : 4kw - 주파수 : 9.41GHz±30MHz - 외형크기 : Ø623*274mm - 회전속도 : 24rpm - 입력전원 : 12~24V DC - 통신방식 : LAN - 물표추적 : 20개
	◦ MFD (통합 내비게이션) - 조타기 좌측에 설치 - 크기 : 445x243x78mm - Power : 24V - 15.6" Touch Screen - 탑재 S/W : ECS, 어군탐지기, 레이더 전시기, AR 해상객체 전시기, CID, BAM, S-AMS - 동시 운용 S/W 개수 : 4개